

[보도자료]

최저임금 심의 거부 경총 규탄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협박과 막말에 꺾판까지, 최저임금 심의 거부한 경총의 자격을 묻는다

기자회견 진행 개요

- 일시 :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경총회관 앞(대흥동)
- 주최 : 최저임금연대
- 참가 : 노동, 시민사회, 청년, 여성계 등 최저임금연대 소속 단체
-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우문숙 미조직비정규전략실 국장
 - 모두 취지발언 :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 노동계 규탄발언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 여성계 규탄발언 :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 청년노동자 규탄발언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 청년노동자 규탄발언 :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 장당 규탄 발언 :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사용자위원 규탄 상징

※ 취재 문의

- 최저임금연대 우문숙 민주노총 비정규전략국장 010-5358-2260
- 최저임금연대 최재혁 참여연대 간사 010-4740-9143

2015. 7. 2.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문]

사용자위원과 그 중심에 있는 경총의 자격을 묻는다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회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신들의 불참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고 한다. 사용자위원은 사유도, 명분도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안 나왔다. 수많은 노동자의 유일한 임금 기준이자,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이 중차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해버렸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의 표기방식을 두고 논의하다 회의장을 나가버렸고,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사용자위원은 법에 이미 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두고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면서 최저임금 심의 자체를 거부했다. 심의도, 합의도, 타협도, 표결도 거부한 사용자위원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의 심의를 맡겨야 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사용자위원과 그 중심에 있는 경총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느 최저임금 심의 때보다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뜨겁다. 노동자와 시민의 삶, 그 자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은 최저임금에 대한 높은 기대를 ‘심의 거부’로 답하는 사용자위원의 무책임과 몰염치를 납득할 수 없다.

사용자위원과 경총의 만행은 이미 도를 넘었다. 자신이 지불해야 할 임금을 체불하고서도 동전으로 임금을 주는 사용자, 온갖 구실을 찾아 노동자의 생계를 동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렵다.

사용자위원은 이미 있는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을 산업현장의 혼란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현실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두고 사실상 고용을 줄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리고 도리어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감추고, 변호하기 위해 재벌·대기업이 야기한 산업현장의 혼란으로 신음하는 영세·중소기업과 노동자의 이름을 감히 앞세우고 있다.

사용자위원과 경총은 올해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다. 한 달 일 해 100만 원 조금 넘는 임금을 두고서 충분히 올랐으니, 이제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경총은 2000년 대 초반 있었던 최저임금의 두 자리 수 인상과 최근 두 번의 정부에서의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을 뒤섞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고물로 올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재벌.대기업의 갑질 때문이다. 재벌.대기업이 언제부터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걱정했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다가 최저임금만 들리면, 영세.중소기업을 걱정하는 재벌.대기업의 태도는 그야말로 가증스럽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이 필요하다면 정리해고를, 명예 퇴직을 단행하는 재벌.대기업이 왜 최저임금 얘기만 나오면 노동자의 고용을 우려하는지 묻고 싶다.

최저임금은 우리가 이름을 들어 알만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도입한 제도이고, 우리나라도 도입한 지 30년이 되었다. 모두가 잘 살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바로 최저임금의 수준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고,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은 당장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복귀하고 최저임금 1만원에 합의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용자위원과 경총에게 최저임금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사용자위원이란 이름의 무게감과 그 책임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수백만의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의 삶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이다. 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사용자의 떼쓰기에 훼손될 수 없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9명의 사용자위원은 즉시, 회의장으로 복귀하라. 다만, 복귀할 때,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 그리고 책임감을 챙겨 오시길 권해드린다.

2015. 7. 2.
최저임금연대

※ 최저임금연대 7월 일정

1. 최저임금 동결. 최임위 파행 사용자규탄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7월 2일(목) 10시
- 장소: 경충 앞
- 주최: 최저임금연대

2) 취지

-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의 무책임과 오만을 강력 비판
- 최저임금 대폭인상 촉구

2. ‘최저임금위원회에 바란다’ 최저임금 1만원 촉구 문화제

1) 개요

- 일정: 2015. 7. 6(월). 12시~ 13시
- 장소: 보신각
- 주최: 최저임금연대

2) 취지

- 7월 6일이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회의로서 2016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는 대중행동을 전개함.
- 저임금노동자의 요구를 문화제 방식으로 모아내고, 이를 언론에 반영될 수 있게 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함.

3) 세부구성

- 1) 문화제 시작하기 전에 ‘최저임금위원회에 바란다’ 각 단체 발언
- 2) 뮤지션유니온 공연(여섯개의 달, 모리슨호텔)

